김지하 칼럼

나에게 한 수 바둑을 두라면

세상을 바둑판이라고 부른 사람은 여럿일 것 같지만 내 기억에 분명히 남는 이는 19세기의 한국 후천개벽사상가였던 강증산(姜甑山)선생이다.

선생은 오선위기(五仙圍碁), 다섯 신선이 두는 바둑판으로 한반도의 현대를 예언한 바 있다. 네 신선은 중국, 일본, 미국, 소련이고 나머지 한 신선은 한국이겠다. 그런데 이 주인신선은 현대 100년을 내내 한 수도 쓰지 않고 네 신선의 복잡한 바둑판을 꼼짝 않고 구경하다가 끝내 네 신선이 판을 끝내고 제 집으로 돌아간 뒤 그 복잡다단한 바둑 수를 몽땅 제 것으로 만들어 세상에 다시없는 웅숭깊은 바둑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바둑판은 과연 어떠한가? 재미가 있건 없건 간에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꿰뚫어 알려면 이 판만 잘 들여다보면 훤히 다 알게 되어 있다. 그만큼 세계와 지구의 온갖 사정이 다 압축돼 있는 곳이 한반도와 그 주변 동북아시아 태평양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한때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오츠크해를 지나 캄차카반도에 간 적이 있다.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페트로 파블로브스크 항구 맞은편의 풀 언덕 미센나야쇼브카에서 바라본 아바차만의 광경이다. 그 광경은 내게 9천 년에 걸친 몽골리안 루트의 유목이동의 근원적 동기가 다름 아닌 보다 더 거대한 호수가 있는 보다 더 거대한 산을 찾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보다 더 거대한 호수가 있는 보다 더 거대한 산이 뜻하는 것은 내게는 보다 더 거대하고 풍요한 신시(神市), 바자르였다.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장 바닥은 반드시 산 위의 물가에 섰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웃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다음 말을 듣고 나면 아마도 그 웃음이 곧 등골의 오싹한 소름으로 변할는지도 또한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키르키즈스탄의 1천500m 고지의 이쉬쿨 호숫가에서 열리는 '야르마르크'라는 국제바자르는 이천사오백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그 상품의 수다한 종류와 내용의 풍요로움, 거기 모여드는, 먼 유럽과 아시아, 남아메리카 및 호수에서까지 모여드는 상인들의 그 애틋한 정다움과 놀라운 가격 다양성, 교환의 엄격함 속에 스며있는 착한 이웃사랑의 호혜(互惠)의식의 철저함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는 단 한 번도 저 냉혹한 현대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임이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마르칸드의 비비하눔 성전 앞마당에서 열리는 바자르의 그 거룩한 활력과 베트남의 고도(古都) 후에시의 동바시장의 그 획기적 재분배의 놀라운 일대 풍광 등은 참으로 현대성을 높이 자랑하는 대도시의 저 수많은 백화점, 몰, 마트, 그리고 대형 배급 시장을 거대한 수치심 속에 몰아넣기에 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이라고?' '주식시장이라고?' '부동산 거품이라고?' '허허허 거 다 뭣 하는 짓인고?'

이렇게 된다. 인류는 이제야 자기의 과거가 가진 여러 참다운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다. 착한 경제, 따뜻한 자본주의, 부자세 신설, 호혜시장, 민중은행, 사회적 기업, 포트라치, 품앗이, 공정무역 등등등등등.

그런데도 몽골리안 루트 9천 년은 어찌해서 보다 더 거대한 물이 있는 보다 더 거대한 산 위의 보다 더 거대한, 그리고 보다 더 냉혹한 시장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 것인가? 대답은 나보다 이 글을 읽는 여러 독자들이 더 잘 안다. 이윤, 초과이윤을 찾아서다. 그래서 그 끝은 무엇인가? 그 이동의 맨 마지막 완성점이 마야문명일 터인데 마야달력의 종말은 몇 년인가? 2012년이다. 몽골리안루트의 미래는 향후 3년 안에 끝이다. 어찌 생각해야 할까?

나에게 한 수 바둑을 두라면, 그리고 네 신선이 두던 온갖 바둑 수를 엮어 한 판 웅숭깊은 새 문명의 달빛을 가리키라면 이렇게 하겠다. 세계 사람이 다 모이는 이 한반도에 저 '야르마르크' 같은, '동바' 같은, '비비하눔 바자르' 같은 우리의 옛 정다운 오일장(五日場)을 크게 걸쭉하게 한바탕 열어 그 이름을 감히 '신령한 시장' 즉 '신시'라 붙이겠다.

〈시인·동국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임선택

저시력인들의 작은 행복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시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쉬운 표현이지 않나 싶다. 안과에서 말하는 저시력이란 교정시력이 0.3이하 이거나 시야가 현저히 좁아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의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손상이 와서 중심시력이 저하되는 병이 황반변성이다. 이 질환으로 이미 한 눈은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정도로 겨우 보고 혼자 사시는 60대 초반의 여자 분이 한숨을 내 쉬면서 "남의 도움 없이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것만 좀 볼 수 있어도 원이 없겠어요." 하신다. 이럴 때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바로 저시력 보조기구이다.

저시력 보조기구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물건은 아니다. 사실 동네 문방구점에서 파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플라스틱 확대경도 일종의 저시력 보조기구이다. 이러한 간단한 확대경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해 글자를 몇 십 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환자 각자의 눈 상태에 맞는 저시력 기구를 고르는 일과 본인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다행히 그 분은 병원에 구비된 저시력 기구들을 이용해 본 결과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켓용 8배 확대경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조명식 8배 손잡이형 확대경을 고르셨는데 이제는 웬만한 영수증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흡족해 하신다.

의사로서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

사실 저시력은 안과영역에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안과의사로서 레지던트때 부터 줄곧 배우는 것이 병의 원인, 진단, 치료이고, 약을 쓰건 수술을 하건 병의 치료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더라도 그 이후의 대책에는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저시력 연구회 회원인 필자도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깜박깜박 그냥 넘어가는 실정이고 환자 눈에 맞게 기구를 적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을 동원하면 환자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존심과 독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대략 우리나라의 저시력 인구는 50만 정도로 추정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저시력인들의 이러한 고통은 본인들의 무지와, 의사들의 무관심, 보건 의료 환경의 척박함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서로가 뜻을 모아 조금씩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볼 수가 있다.

조금 더 행복해 질 수가 있다.

〈이연안과병원 원장〉

기고

안기석

光州 노인타운에서 행복한 노후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대부분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님을 공양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시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다. 상당수의 어르신은 오랜 노동으로 육체는 노쇠해지고 경제적 궁핍에 정서적 공황까지 겹쳐 노후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고 온 경기침체와 고환율, 고물가 등의 경제적 한파로 인해 어르신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어르신들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아 주고 삶의 활력을 북돋아 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전체 시민의 8.3%인 11만8천 명('08.12 현재)으로 고령화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전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본격 구축하고 있다.

특히,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41만㎡의 부지에 프로그램실, 이·미용실, 상담실, 자원봉사센터, 매점 등을 갖춘 복지회관을 비롯하여 공연장, 고령친화체험관, 컴퓨터교실, 도서열람실, 매점 등을 갖춘 문화센터와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운동측정실, 샤워실 등을 갖춘 종합체육센터, 그리고, 숲, 잔디광장, 게이트볼장, 파크볼장 등 생활체육공원으로 꾸며져 어르신들의 운동과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관되고 이어 오늘 기공식을 갖는 북부노인복지타운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들께 일자리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작업장, 제조사업장 등을 갖추게 되며 여가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조성되는 등 일·건강관리·여가가 one-stop service로 제공되는 시설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전국 최대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 시 에서는 2009년 말까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21만여㎡(9홀) 규모의 골프장과 75타석 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이의 운영수익금으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운영비로 충당하는 등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립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선진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도 2011년까지 조성하여 건강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각종 노인성 질병을 조기진단받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130병상 규모의 치매병원과 180병상 규모의 퇴행성질환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고령친화제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구입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체험관도 구축한다.

이와 같이 각종 노인 인프라가 들어서면 우리시는 남도의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인정이 넘치는 후덕한 정과 저렴한 주택, 한 장소에서 마음껏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테마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여가서비스 시설 조성으로 국내외의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물론 정년 후 퇴직자들이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금년 5~6월 개관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이어 2010년 북부노인복지타운이 조성되어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과장〉

'떼법' '네탓 문화' 하루빨리 없어져야

얼마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1위인 반면, 법치 시스템은 26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등위는 카타르(16위), 말레이시아(20위)보다도 뒤처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같은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질서와 관련해 서로간에 자조 섞인 생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떼법'이다. 떼법이 존재하는 나라이며, 떼법이 통하고, 그 떼법은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떼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법을 어겨 법질서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믿는 이른바 '네 탓'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연히 다른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운전자는 적잖은 교통법규를 위반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차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끼어들 경우 가차없이 클랙슨을 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운전중에 하는 불법과 끼어들기는 운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그것은 절대로 용납 못하는 '네 탓'문화가 아주 뿌리깊다.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도 대항하고 욕설을 하는 불법 폭력시위 또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우리 국민성이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진정한 선진시민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119 구급대원들도 공무 수행중 폭행에 대한 보호 필요

사촌동생이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도 밤 늦게 잠겨진 아파트 열쇠를 따 달라고 요청하거나, 엉터리 전화로 골탕을 먹이는 일은 아직도 좀 있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쏟아야 할 시간적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잖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119 구급대원들에게 정말 회의감을 맛보게 하는 것은 밤늦게 신고받고 출동했다가 환자나 보호자한테 얻어맞는 일이라고 한다. 주로 야간시간대 술에 심하게 취한 사람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공공의 업무를 하는 구급대원이 아무리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려 해도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을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다.

예전에 수많은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버스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119구급대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이 분리된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해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사건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사설

亞 문화전당 공사재개 합의 환영하지만…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중단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가 금명간 재개될 전망이다. 아시아 문화전당 추진단과 5·18 유족회 및 부상자회가 3일 간담회를 갖고 공사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추진단과 5월 단체 간의 합의는 문화전당 건립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옛 전남도의회 건물 철거를 시작하고, 별관에서 농성을 벌이는 5·18 단체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조만간 도의회 건물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추진단은 15~20일이 소요되는 도의회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별관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5·18 단체는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별관 철거와 보존이라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합의에 의미를 두는 것은 공사재개도 재개이지만 별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별관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도의회 철거공사 기간 동안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양측의 태도다.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문화전당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명분과 아집에 사로잡혀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5월 단체와 추진단은 5·18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담보해낼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내야 한다. 특히 5월 단체는 별관 보존만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지역 노·사·민·정 합의, 말보다 실천을

마이너스 성장, 실업대란 등 온통 암울한 이야기들뿐인 와중에 모처럼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자·사용자·시민단체·공공기관(노사민정) 등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광주지역 노·사·민·정 대표들이 4일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남도 노사정협의회도 '노·사·민·정간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공개토론회'를 열어 일자리 나누기 등 상생의 노사문화를 다짐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협약선언에서 노측은 임금인상 및 파업자제 등을 다짐했고, 사측은 해고자제와 고용유지라는 말로 화답했다. 시민단체는 기부와 기업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광주시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합의는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협력선언이 부디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 마디의 말이나 다짐보다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선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만이 해법이 아니다. 기업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실업과 그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근로자는 비상경영에 기꺼이 동참하는 등 고통분담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경험과 지혜가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국가경제를 구해냈지 않은가.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는 '화합'이다. 이번 노사민정의 상생정신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략산업의 딜레마

한국은행이 5대 광역경제권 32개 전략산업의 지역 기여도(2001~2006년)를 조사해 보니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 등 동남권의 전략산업은 해당 지역 제조업의 성장을 선도했으나, 호남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광주·전남이 육성해온 광산업, 생물, 신소재 조선 등이 지역 산업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전체 제조업 성장률을 깎아먹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충청권의 전략산업은 35.6%나 성장하며 제조업 성장률(10.0%)을 25.5%포인트나 상회했다. 대경권(22.0%), 동남권(9.5%)의 전략산업도 4~13%포인트 이상 앞서갔다. 전국적으로도 전략산업 성장률은 19.3%로 제조업(14.8%)에 상당히 앞선다.

반면, 호남권 전략산업은 4.1% 성장에 그쳐 제조업 성장률 5.8%보다 1.7%포인트 뒤처졌다. DJ정권 때부터 지역 전략산업에 수천억 원씩을 쏟아부으며 5~10여 년간 집중 육성했으나, 지역경제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호남권 전략산업의 딜레마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광산업이나 생물산업 같은 첨단 업종이 산업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짧은 기간에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2007년 기준 호남권 제조업의 집적도 또한 26.7%에 그쳐 5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꼴찌를 차지, 이를 확인하게 했다. 제조업 비중이 클수록 전략산업 발전도 빠르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다.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있다. 경북이 전자정보기기에 올인 하듯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된 업종을 진득하게 키우면 된다. 광주의 경우 클린디젤 엔진이나 디지털 가전 육성이 답이다. 광산업처럼 '맨땅에 헤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